

1

'쓸
데
없
는
소
리'

2

쓸
데
없
는
소
리

황
예
원
의
미



‘수
소
문’

우리는 비접촉, 비대면, 기계화에 최적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아주 어렸을 적의 그나마 정이 남아 있던 때를 미세하게 기억한다.

우리는 다소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지는
21세기의 기억을 애써 되짚어가며 살아간다.

동네 곳곳을 거닐다 보면,
눈에 흥미로운 잔상을 남기기도,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키기도,
그 따스했던 기억을 되짚게 해주는 현장을 마주칠 때가 있다.

우린 그 속에 들어가 그들의 이야기를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시대의 끝자락을 기록으로 남긴다.

작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야기 듣기’이다.

우리는 당신이 기억하는 태몽을 물으며 말을 건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다 보면
저절로 말문이 트여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 듣기’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다.

우리는 그들과의 다음을 약속하며 또다시 만나고, 인사하고, 낯을 익히며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을 읽기 전 필자는 왜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 책은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나의 이야기를 조금 빌려보자 한다.

어렸을 적 부모님은 맛별이를 하느라 어린 나를 240.8km가 떨어진 할머니 집에 맡기셨다. 할머니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니었지만 긴 시간도 아니었다.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생각들이 확립되기에 만연히 어린 나이였음에도 '나는 할머니가 키워주셨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되뇌며 살았다. 그렇기에 머리가 큰 이후로 항상 할머니께 감사하며 살았고 할머니는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정신적 지주이며 원동력이었다.

당신과 친했기에 나는 어른들과도 곧잘 말을 섞을 줄 알았다.
당신의 친구가 오셔도, 옆집 어른신이 오셔도 그 속에서 거리낌 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나 또한 열심히 떠들었더라.
그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웠다.
그들이 해주는 옛날 옛적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다.
내가 어렸을 적 이야기.. 내가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 전해 듣지도 못한 시점에,
우리예겐 암이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이유 모를 복통과 두통에 시달리던 할머니는
결국 20년 9월에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그 후, 당신의 눈빛은 무엇을 응시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내내 허공을 바라보고 있거나, 왠지 우울해 보이는 눈빛이었다. 가족들은 그런 할머니께 쉽사리 말을 걸지 못했다.
그렇게나 대화를 많이 나누던 나 또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고민이었다.

난 그저 당신이 살겠다는 의지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당신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끝까지 내 곁에 있을 거라는 생각 뒤로 남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원래도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는데, 9월 이후로 유독 그 대상은 당신이었다.
사진 수업 과제라는 핑계를 대면서 열심히 당신을 찍었다.
내 렌즈에 담고 또 담았다.
천연덕스럽게 계속해서 물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중에도 느낀 것이지만, 할머니들은 이야기보따리를 열기만 하면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모두 해주신다.
힘겨웠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당신은 내게 보따리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다.

또 내가 손녀이기 때문인지,
고모나 아빠와도 하지 않던 이야기를 내게는 곧잘 해주셨다.

그 내용은 대부분이 그들을 더 잘 키우지 못해 더 잘 먹이지 못해 미안하다는 이야기뿐이었다.

그 시절엔 어떻게들 살았는지,
 내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는지, 내 아빠는 어떻게 자랐는지,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 이야기, 시댁 식구들 이야기, 할머니의 어렸을
 적 이야기.

그렇게 나는 할머니의 생애를 거의 알게 되었다고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할머니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당신은 내가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닐 때쯤 한 식당의 주방장이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당신이 멋진 요리사라고만 생각했고,
 내가 머리가 크고 나서도 일을 많이 하신 것만 알았지,
 이렇게 온 생애를 고되게 살아오셨는지는 몰랐다.
 들어보니 당신은 삶 내내 고생만 하셨다.

마지막으로
 ‘이제야 일 좀 그만하고 좀 쉬어보려는 데 앞에 걸렸다’
 라던 당신의 말을 듣고 내 세상은 무너질 것만 같았다.

내가 어렸을 적부터 말해왔던,
 내가 어른이 되면 둘이 여행을 가자는 말도 지키지 못한 채

21년 6월 15일.

내 할머니는 별이 되셨다.

그 후로 나는 특히나 할머니와의 대화를 그리워했다.
 할머니들의 꼬부랑 진 목소리, 그들의 옛날 옛적 이야기.

수소문 활동을 하며 만나는 어르신께
 말을 걸고 곧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할머니의 빈자리와
 내내 궁금해하던 것들을 동시에 해소했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나갔고,
 자라면서 내가 호기심을 갖던, 그나마 어렸을 적까진 이어지고 있던, 변화에 모든 게
 서툴렀던 그 20세기와 내가 향유하고 있던 21세기 초는 빠르게 지나갔고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은 점점 비대면, 비접촉 시대로 변해갔다.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던 정은 사라졌다.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인 세상이 왔다.

나를 차갑게 얼려버린 이 시대는
 과거에 대한 호기심을 그리움과 동경으로 이어지게 했다..

그 그리움과 동경은
 21살의 여자애가 오래된 것에 집착하며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시작할 때
다 늙은 사람이 하는 쓸데없는 소리가
뭘 그렇게 재밌냐고 묻는다.

난 그 쓸데없는 소리가 좋다.
그 쓸데없는 소리들을 모으고 기록한다.
또한 나는 그의 청자이자 화자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이야기를,
쓸데없는 소리를 해보고자 한다.

쓸데없는 소리

그럼에도 좁는 박스 떼기 ... 13

모래내 이야기 ... 28

공깃돌이 구를 때 나는 소리 ... 34

길거리의 울림 ... 48

어둠 속 오색 빛 ... 61

그림에도 줌는 박스 떼기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세상에 나간 사람들도 많애.
여 학생들이 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애?
본받을 것이 너무 많다고 살고 나갔어.

내 말은. 나를 보고 열심히 하라고.

내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 건물에는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계신다.
또한 미대가 다 그렇듯, 각종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전공 특성상 위험한 화학용품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장갑을 끼고, 방독면을 끼고 사용하던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할머니는 그걸 항상 맨손으로 치우신다.

나 또한 다른 동기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 없이 그것들을 버리다가
어느 날 당연스럽게 쓰레기통 앞에 앉아
맨손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계신 할머니를 보고 까무러칠 뻔했다.

우리끼리도 그 용액들이 조금이라도 묻으면
바로 손을 씻고 약을 바르는데,
그게 묻은 휴지를 아무렇지 않게 다른 봉지에 모으시는 할머니셨다.
걱정이 되어 장갑이라도 끼시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이런 일을 몇 십 년 했더니 기술이 있어서 괜찮으시란다.
그 후 내 시선은 항상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할머니를 쫓곤 했다.

또 할머니와 그런 걱정 섞인 얘기를 나누던 어느 날
할머니는 문득 할머니의 손녀 얘기를 들려주셨다.
그 흔한. 할머니들의 손녀말 자랑 말이다.
그 자랑을 시작으로 우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할머니의 성함은 김 순 심이다.
 순할 순, 마음 심자를 쓴다고 하신다.
 우리 할머니도 이름에 순할 순이 들어가셨는데,
 그래서인지 조금 반갑게 느껴지는 순 자였다.

물론 평생은 아니었지만,
 뼈저리게 힘든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신다.

다른 얘기는 쉽게 해주시는 반면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할머니는 과연 피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에 캐묻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묻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다른 거는 저기 없고 내가 고물장사를 한 이삼십 년 하면서 내가 손녀딸을 둘을 쌍둥이를 같이 길렀어. 손녀 딸 올해 이화여고 졸업해. 수험생이야. 걱정이여 우리도. 그것 때문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고것이 나를 걱정을 해서 대신초등학교에서 일학년 때부터 육학년 때까지 매 할머니 손이 아프도록 일한다고 글을 써 갖고 상을 싸붙이 했단니까. 쌍둥인디 둘 다. 그래서 하도 공개 나한테 인사를 해서. 내 말은. 나를 보고 열심히 하라고.

나가 적응이 돼갖고 우리는 기술로 하니까. 나가 단련이 되어갖고 당지도 않고 그러니 그렇지. 너무 고맙고 이쁘고.. 학생들이 다. 다 내 손녀딸이다 생각하고 그냥 하면서 맨손으로 일하든 나한테 저렇게 맨손으로 일한다 그런 마음을 얘기해 줘서..

나는 진짜 재활용에 대해서는 상 받을만해. 내 자신이. 보든 알제?

하나도 허투루 안 하고 다 아주 분리해서 하니까.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 한 거여. 고 마워. 우리 손녀딸.. 하나는 쌍둥인데 여기 학교 다니고 큰손녀가 이화여고 갔어. 그것이 챔피언하다고 처음에는 그랬어. 챔피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다 이렇게 해서 녀들이 공부하지. 했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3년간 잘 버텼어. 할머니 여 일하는데도.

나이가 먹어갖고 알아 보든 못해 사람을. 마스크 쓰니까 그냥 마 인사만 받지. 못 알아봐.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할머니를 보고 열심히 하라고!

나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 근데 지금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서 살어. 우리 딸도 여기서 살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거든. 그게 평생 가져든. 열심히 살어. 선물 하나 줘 갖고.. 그것도 너무나 고맙고...

우리가 재활용을 하려 해도 내가 다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할 거나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셨다.

여름 즈음. 할머니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많은 학생들의 동의하에 과 차원에서 돈을 모아 할머니께 소정의 선물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정말 두고두고 고마워하시던 할머니였다.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다 할머니는.



처음이며.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세상에 나간 사람들도 많애.
여 학생들이 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애?
본받을 것이 너무 많다고 살고 나갔어.

이 말씀을 하며 할머니는 나를 꼭 안아주셨다.
토닥거리면서 "다 손녀딸이며 손녀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할머니의 품도 품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토닥거리며 안아준 게 정말 오랜만이였다.
할머니들만의 힘인 걸까.
단순 '허그'가 내 마음을 울려버리는 건.

목도리하고 장갑을 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만나서 밥 사줬어.
아줌마하고 만날라고 만날라고 해도 못 만났어.
밖에서 이레가고 할머니!! 하고 뛰쳐와서 껴안고 하다가 그레가고 내가 밥 사줬어.
너도 내가 밥 한 번 사줄게.

나는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으니까..

할머니 안추우세요?

으잉 안 추워. 나는 너 올라간 줄 알고 하하하 올라간 줄 알았네
추운 건 장갑 있음께 장갑 끼면 돼. 뭐가 걱정이여

저도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하하하 할머니가 키워주셨어?

할머니랑 엄청 친하거든요

부지런해서 할머니가?

할머니 엄청 부지런하세요.
맨날 일만 하시고 하지 말라 그래도 일만 하고

하하하

할머니들 다 똑같은!

할머니는 언제 쉬시게요? 일을 언제까지 하시게?

여기 끝날 때까지 해야지
아니 퇴직 나이가 있어 나이가.
저기여 저기 저 일흔다섯까지여
나는 일흔셋
다섯까지 해야지.

어 그럼 저희 졸업할 때!

아니 저 건강해야.. 인자 몸이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은 금방 저기하게 돼. 지금은
아픈데 읊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운동을.. 운동하니까 그란 거 같애. 마음은.. 저기 저 뭐 할 때까지 할려고 한다. 그거
는 못해.

나는 지금이 제일 기쁘제. 너무 힘들게 살아서 지금이 기뻐. 너무 행복해 지금은.
내가 하고 싶어서 일하고. 호호.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전두환이 정권 잡을 때 애들을 전학시킨다네. 그거를 못한다. 그
래 가고 농사 싹 팔아갖고 올라온 거여

애들을 그 정권 때 학교를 못 보내게 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때 하던 농사 짝 팔아 갖고 올라온 거여 그때가 흐흐 80년 때여. 저 저.. 80년대나 될걸? 아이, 나도 잘 몰라. 그런 건 기억 잘 안 나고.

그럼 원래 어디 사셨는데요?

원래는 전라도 살았어.
학생은 어디여?

경상도!

딸은 경상도로 시집갔어.

그렇게 딸은 그래.. 그것들이 공부를 잘했어. 지들이 열심히 하제. 내가 해봤자제.

저기 저 할아버지가 군산 가 계셨어. 군산으로 시간이 났지. 시간 나가지고 살다가 힘들게 딸을 하나 낳아가지고 전라도 광주로 갔어. 전라도 광주로 가니까 군산보다 더 힘든 거여 광주가.

군산은 항구도시고 광주는 교육도시라 없는 사람 살기가 더 힘들더라고. 그래서 인자 애들 데리고 할 수도 없고 인자 또 클때기는 아주 양반집이 동네에서 컸어. 이런 장사하는 것은 상놈이라고 하도 못하게 해.

전라도 우리 고향이, 친정 마을이. 부자동네라서 이렇게 장사 같은 것을 하면 상놈들 이라고 하도 못하게 해. 장사하는 것도 못 봤대. 그리고 인제 갈치도 못하문서 양반 양반만 찾아 친정 동네서. 그렇게 할머니 친정어머니는 진짜 부잣집 딸이여 그런데 거 거도 저기는 아니여. 하도 우리 본가가 양반이다 양반이다 하니까 시집을 온 거여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그렇게 그 부자 공주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갖고 배부르게 밥 먹고살았어. 또 외가가 인제 도와주기도 하고.

하어튼 우리는 없는 집으로 시집오고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지. 큰집이 같은 마을에 있었는데. 큰 어머니는 인재여 진짜. 말하자면은 서당에 훈장. 큰 아버님도 그렇고. 배워서. 큰아들만 그때는 가르쳤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못 배웠지. 너무 넉넉지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큰 아들만 가르쳤제. 인자 그 자녀분들은 연대 이대를 갔지.

내가 민씨 가문에 시집을 갔어. 그렇게 거기는 매 양반만 찾은 거여. 우리보다. 여기는 조카들이 의사들이 드글드글해. 우리는 그렇게 넉넉지 못하니까. 친조카는 쌍용그룹에 있다가 싱가포르에서 거기서 다 해내고 또 여기로 들어온 거여. 공계 그 아들은 무엇이 되냐 하면, 국제 변호사가 될 것 같애. 싱가포르에서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똑똑해. 그런 가문이여 우리가.

그래도 맨손으로 일한 것도 장갑 하나라도 쓰레기로 안 버릴라고 한 거여. 그런데 장갑을 안 끼고 고물 팔러 일하러 가. 우리는 여름 고물상으로 안 가고 있던 차로 이 톨싹을 싣고 가문 '아따 사모님 장갑 끼고 하세요' 하고 장갑을 줘. "아잇 필요 없어요!" 하잖어. 없어서 장갑도 안 끼는 것도 아니고.

여봐 일한 손 같은가.



하룻저녁만 자고 일어나면 새 손 되어부려.
노후가 되면 물어도 상관없어. 첫째기 낳아서 기르면 닳아도 못 보.
그래도 둘 나오고 셋 낳으면 멀져. 즈그 힘들고 즈그하니까.

그렇게 인생 살았네...

그런디 동네서도. 여기서도 내 므시기를 보고. 내 몸매를 보고.
내가 또 옷을 만들면 멋지게 잘 만들어. 입고 다녀! 이것도 인자. 고물 하든 천 옷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이 원피스여. 뒤로 입으는 원피스디 내가 인제 불편함께 앞으로 입을라고 이렇게 만든 것이여. 그래 가꼬 여가 하얀 소매가 달렸더라고. 다 잘라 부렸어 손으로. 박음질했어. 그라고 꼬 앞으로 있고 여가 또 카라가 있어 카라 내가 다 지워 뿔고. 이릉게 입고 요거 허리 안 나오고 따뜻하라고 이렇게 한 그여.



그렇게 젊은 그그도 오십 대나 되나 몰라. 내가 하고 다니는 것이 다르니까 '아따 멋진 옷도 입었네.' 그렇게 요거도 달고, 요거도 달고. 인자 여기 여만치나 해 젊어서 입었어. 그 원피스가 좋았어. 사진 한번 찍제. 그러니까 찍자 그랬어. 말도 잘하네. 이리데. 저기 그람서 '옷이 이기 쨌 마음에 들어요'. 여 난 내가 만든 옷 많이 있어. 그랑께 '그럼 같이 옷 입고 사진 찍어요' 그라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이랬지.

아팠더라고 몸이. 그렇게 아무 소식이 없어서 ...

내가 모시옷을 해 입고 나갔어. 근데 그것이 인자 품질도 하고 멋지게 해서 다리에만 이래가고 막 빨아서 입었제. 집에서 한 거야. 같은 아파트에 사신 이비인후과 사모님이 바늘에다 맡겨서 해 입으면 좋겠다. 멋있게. 나중에는 인자 딱 원피스를 입고 나갔어. 그렇게 '그것도 만들어 입었어요?' 이래. 내가 그래서 '예. 만들었어요' 이랬지. 어찌면 이리 바느질을 잘하네. 잉 그러서 원피스를 세 개 만들고, 세 개를 이렇게 해서 입고하고 나와.

다음에 입고 오셨을 때 저한테 자랑해주세요.

내가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사진 찍게 보여줄게.
또 얘기할 거 하나 있어. 경향신문에서도 나왔어. 기자가 와 갖고 찍고 갔어. 기자가 와서.

정말요?

그거는 고물 장사한 거.
진짜 엄마 아버지 훌륭하대. 아들딸이.
핸드폰에 나와. 찍으면. 경향신문 민씨라고 쳐봐. 민경추. 할아버지 이름이 민경추야.

찾아보니 정말로 기사가 존재했다.
“폐지 줍는 노부부”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기 시작한 건 IMF 외환위기를 맞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부터라고 한다. 당시에는 폐지 줍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집집마다 버린 물건을 모아서 팔면 돈벌이가 제법 좋았더라. 낡은 삼륜 오토바이를 개조해 폐지를 산처럼 집간에 쌓아서 고물상에 팔곤 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요새는 골목골목 폐지를 줍는 분들이 많아서 벌이가 그때만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민씨 부부가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낡은 수첩에는 동네 노인들의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다. “폐지를 모아주던 동네 단골들이 한때 400명이 넘었는데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고부터는 많이 줄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은 뭐예요?

내 이름은 김 순 심
김은 강산 김가 양반김 씨라고 순자는 순할 순자 마음 심자.
거기도 김 씨야?

우리는 강 씨.

강 씨? 그거는 진짜 강한 거여.
최 씨도 그렇고.

이야기 팔아갖고 살아 나는.

재밌어.

우리 할머니도 쓰레길 줍곤 하셨다.
 쓰레기를 주울 연유 따위는 아무리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냥. 그냥 주우신다.
 그저 손녀딸 용돈 조금 더 주려고.
 아들딸 왔을 때 맛있는 거 해주려고.
 또 가만히 계시질 못해서.

꼼짝 앉아있는 것이야말로 할머니께는
 고문과도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셨던 분이 소파에 앉아 그저 창밖만을
 바라보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할머니가 겨우 일어나셨을 때 움팡지게 패인
 소파의 자국은 내 마음을 후벼팠다.

김순심 할머니는 나를 안아주셨다.

그 품은 그저 우리 할머니 품 같았다

모래내 이야기



하루는 장기판 구경을 하러 홍제천에 갔다.
 냇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궁금증이 생겨 가까이 가봤더니
 하천에 발을 담그며 피서를 즐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중 한분이 기타를 치다 말고
 우리 쪽을 흘깃 보았다.

아저씨 여기 주말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거예요?

여름철예요. 이게. 아 어디 사세요?

사당 동작에 사는데 여기 물이 깨끗한가 봐요.

네 저 뭐.. 2급수죠. 원래는 여기에 경의선 철도가 있었어요. 이제 연남동에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홍대까지 있어요. 이 철도를 없애고 공원을 잘 꾸며놨어요.

이 철도를 없애고 경의중앙선 철도를 뺐다 이거예요. 중앙선 40미터예요. 40미터인데. 여가 옛날에 물의 지대고, 모래내, 지대고.

옛날에 자갈 모래를 채취해서 팔았어요. 어른들이. 한 40년 50년 전에..
 근데 결론은 지하철을 뺐단 말이에요. 지하철을 파면 모래 밑에 물이예요. 그 40미터 지점에 물이 계속 고여요. 고이면 자동 저장 장치로 퍼프가 40분 간격으로 차요.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물이... 퍼프에 나와요 어른들이 여름에 나와요 어른들이. 온도가 천지차이죠? 물이 그냥 시원한 정도가 아니예요. 서울에 이런데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고. 원래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죠. 저쪽으로 가면 더 시원해요. 이제 안산 쪽이고 안산 저기 물레 방아. 근데 여기가 더 나아.

여기 사세요?

연남동 살아 연남동.

자주 오세요 여기?

용산에서도 오고 강남에서도 오고 그래

뭐하시는 중이예요?

선댄 선댄. 여름부터 슬슬 태웠어 현장일 하느라 말랐어요 막노동 하느라..

이런저런 모래내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아저씨는 곧바로 돌아가
 다시 기타를 치며 피서를 즐기셨다.
 아저씨가 얘기해 준 사실이 꽤나 흥미로웠던 우리는 당장 신발을 벗어던져 냇가에
 발을 담갔다. 정말 시원했다. 아저씨 말대로..

그저 피서를 온



주민들이었다.

우리는 이 피서가 흥제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천을 따라 위쪽으로 계속해서 걸었다.

걸다 보니 다리 밑에서 또 다른 피서를 즐기고 계신 할머니들을 만났다.
할머니들은 돛자리를 쌓아두고 수다를 떨고 계셨는데
눈길이 갔던 건 돛자리 한쪽에 쌓여있던 돌무더기들이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우리는
이 돌무더기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돌무더기의 정체는 바로 공깃돌이었다.
다행히도 공기를 못하는 건 아니었던 터라
쉽게 그 돛자리 한편을 내어 받을 수 있었다.



공깃돌이 구를 때 나는 소리



셋이 해봐요. 내가 심판할 테니까.

그건 미끄럽고 이게 좋아.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어디 되려나.
저건 미끄럽다고. 저거는 미끄러운 부분이.. 여기 와서 해봐.
작은 거 저기! 이것도 작은 거. 이것도 작은 거..

우리가 공깃돌에 관심을 가지니
열른 앉아서 한번 해보라는 할머니셨다.
그리고 우리가 앉으려 할 때쯤
이제 갈 때가 되어 가신다는 할머니도 계셨다.

어? 인자 가지게?

네 시 반 안됐어.

일로 와서 해봐요.예?

아니 이런 거... 야들은 문방구에 산 거 갖고. 이거는 우리는..
별로 재미도 없어..

젊은애들이 잘하네.

아니 문방구에서 산 거 갖고 했잖아.
우리 때는 사놓은 게 없으니까는.. 전부 자연적인 걸로 했어.

어어! 조심히 가쇼.
이리와서 해봐요.

젊은이들이 잘하네
언니도 가?

일찍 나왔으니. 두시간 이상 못놀아. 오래는 못놀아.

나는 못가. 아니 뭐하는 아가씨들이 이렇게 짹짹하고 서비스가 .

할머니들이...요즘 뭐 애들 손자지 뭐 손자.

나와 언니들은 돛자리 한켠에 앉아
공깃돌을 집어 던지고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몰려든 할머니들 사이에
조그마한 공깃판이 열렸다.

받는걸 다시 해봐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그래. 그런건 잘하는데 받는걸 잘해야지.
받는걸 다시 한번 해봐.한번 보여줘 봐.한번 해봐 그걸 잘해야돼.
어우 잘꺼네 잘하네.

어유 이걸 돌이 너무 크네. 이게 좋겠다.
돌이 너무 커. 요게 좀 적은가? 이게 적겠다. 아이 너무 커

아니 취향껏 허라고 취향에 맞춰서 허라고 다 놔놔잖아.

아니 이렇게 적은걸로 해야지 너무 커서

손 안아프세요 할머니?

너무 커가지고 손이 아프다고 야단을 하잖아.
좀 작은 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어디 내가 적은 거 놔뒀는데.
어디 보자 나는 어디 놔뒀어.

그러니까. 없어졌네.

저기 어제 내가 낚은게 없나.

없는 것 찾지말고 여서 골라 해.

너무 커서 그래!

큰거 좋아하는 사람은 큰걸로 해

가위바위 보 가위 바위 보 보 보

좌르륵-

아이 쫘다 이거. 1년인데 이렇게 되면...

에이. 건들어서 안돼.

어어! 아 이거 큰일났다..

살짝 해봐 살짝.

어어어! 아이구 아이 잘했다.

여기를 나오면 평평한 데서 해. 저기는 쪼글쪼글하잖아.

더 나와서 판판한 데서 해. 여기가 쪼글쪼글하잖아. 일로와 조금 뒤로 나와.

어려서. 옛날에 많이 했어. 이런거.

근데 할머니가 아가씨들이랑 게임을 붙였어.

어우 잘한다. 어우 잘한다!

아이구.. 나는 박인가 네 개젠가. 아이 세 개만 얹혀야 되는데.

아이, 아이 이거는

손에 구멍이 났나 나는..

손 생김새를 봐봐 이 언니가 이렇게 하면은.

당신네들 봐봐.

여도 쏙 들어가갔고

손이 야무져서

우리는 이렇게 이래갔고 이렇게 생겼는데.



아이고 잘했다!

손이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아잇 기껏 해가고 이렇게 해가 이겨도

이렇게 받을 때 지니까 내가 안 하잖아.

지금 그래도 공기 모르는 사람 많은데 할머니가 하나까 따라 하네.

어우 얘기 때 다 했어. 문방구에서.

우리 딸 오십 하난데 어렸을 때 다 하고 놀았으.

와! 아 열다섯!

아니 이 할머니가 여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기가 빈득! 살아가지고..
1등만 하나까 1등만

그래서 어찌자는 거?!

이긴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야지 이긴 사람이 .

이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어.
찰찰하게 찹찰하게 멀리 던지면 안돼..

못 따라가네. 이 할머니가 공기 박사야 공기 박사.
손이 쏙 들어가갓고 이렇게 해갓고 쏙 들어가 갓고 탁!
내가 딱 한 번 이겨봤어 딱 한 번.

한번해!

안해애애.

해애애.

안해애애!

이거는 색깔 돌도 똑같잖아. 똑같은 색깔.
날마다 한 개씩 모았지.
저서. 바닷가. 요런 거 있을까 말까야 하나.
바닷가 가야지 바닷가.
집구석이 돌. 집구석이 돌은 안돼. 뽀족뽀족해갓고 다 깨져.

여름마다 여기다가 ..
오늘은 달 시원하다.
거가 더 시원하다 거가.

아이 이젠 너무 많이 올라가. 못봤어 이계에 이게 아닌건 아닌져 아닌건 아닌기야!
오! 잡았다 진짜! 와 진짜!

예원아 1점 따야지.

아니 아니 안돼 안돼.. 어이고 좋다! 어어 좋다!

애가 고수야.
이 할머니는 박사고.

이게 차가운거라 여름에 놀기 좋아

이거 이려다 운동되겠어.
나 꺾기? 33에 2단? 아닌데? 계속 헛갈리네. 5단. 2단?

할머니 사이의 언어를 향유하며
공기를 하던 우리는, 나는
결국 그 움푹 패인 손을 이기지 못했다.

야 할머니 승!!!!

뭐 사줄 건데?

아이스크림이요!

그러면! 그냥 지금 먹으러 가자!

비비빅? 할머니 저희가 사올게요!

어유 됐어요 됐어 나중에 내일 만나가지고 한 번 더 하고 !
그럼 다음 주 주말에 와서 또 하고!

할머니는 우리와의 이 놀이가 내심 재밌으셨나 보다.

우리가 다시 그 다리 밑을 찾았을 땐 서늘해진 후였고
 그때 그 할머니들은 온데간데없고
 돌에 깔린 곱게 개인 돗자리뿐이었다.
 처음 보는 아주머니 둘이 그 다리 밑 끄트머리에 앉아계셨다.

여기 항상 계시는 할머니들 보셨냐고 물으니
 '그 할머니들 이제 선선해져서 안 나와!'라는 답을 들었다.
 그 답에 속상해하던 우리는 어쩌다 그 아주머니들의 돗자리 끝에 다시 앉게 되었다.



두분은 여기 자주 나오세요?

오늘 처음 나왔는데. 하하하

아 진짜요?

처음 만났는데 학생들 만났어.

처음 나오셨는데 여기 계시던 할머니들은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시골 출신이라 하하하

일로 지나다니니까 봐. 맨날 여기 모여있으니까.
노인네들 화투치고 놀고 노래부르고 박수치고 놀고..

그럼 너는 그 할머니들을 어떻게 알고 찾아?

공기놀이했었거든요.

공기?

네. 할머니께서 돌맹이 주워다가 공깃돌로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 공기를 잘해?

그럼요!

그럼 돌맹이 한번 주워와봐!!

여기서요? 여기도 있기가 하겠다.

잘은걸로 몇 개 쫓어와봐!



공기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알고 보니
두 분은 울산 출신이셨다. 울산은 나의 고향이기도 하다.
서울 생활을 하며 부산 사람, 통틀어서 경상도 사람은 꽤나 마주쳐도
꼭 집어 울산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은 편인데 이렇게 홍제천에서 문득 고향
사람을 만나다니. 오랜만의 사투리는 정말로다가 달콤했다.
그리고 내가 어찌다 만나는 울산 사람들 또한 우리가 소수이고
우리가 마주친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과 나의 연대감은 높을 대로 높을 편이다.

이 아주머니들과도 그랬다.

서울에 와서 다 만난거야.

대왕암도 몇 번을 가봤고.

대왕암은 방어진이고.
언니 그쪽에는 구름다리 만들어놨가 참 좋더라.

태화강 대나무 숲 글로 다녔어. 밭에는 양귀비를 많이 심었더만은.

가짜 양귀비. 많이 심어놨드라.

서울이 좋으세요 울산이 좋으세요?

야 서울이 좋지. 문화시설이 뭐 그냥.

말은 나쁜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쁜 서울로 보내라 그랬다.
울산은 공업 도시고 서울은 문화 도시야. 대도시고.

동생들 없어?

남동생 있어요.

고등학생밖에 안됐겠네. 동생도 서울로 와야겠네. 하하

하하 그러게요.

아가씨는 중학생 같애. 마스크 쓰고 있으이 중학생 같애



얘기를 하며 슬쩍 본 아주머니의 손에는 봉선화 물이 들어있었다.
매니큐어 냄새를 싫어해서 항상 봉선화 물만 들었는데,
할머니는 그런 나를 위해 항상 길가에 봉선화가 보이면 따놓고는
내가 할머니 집에 올 때까지 그걸 모아놨다가
내 손에 봉선화를 물들여 주시곤 했다.

빨개진 아주머니의 손끝을 보고서
내 빈손톱을 보니 마음이 조금 시렸다.

우리 아들이 옥동중학교 다녔는데 우리 아들이 2회였어 2회.
애들이 한참 초등학교 다니면서 오전반 오후반 이랬거든.
바글바글했어
일주일은 오전반 일주일은 오후반 다녔다.
중앙초등학교. 신정동 있잖아. 언니야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지.

울산에 엄마 집은 자주 가나?

아니요.. 울산 너무 가고싶어요.

울산 나도 뭐 얼마전에 갔다왔는데..

고향인데 그래도 버릴 수 있나.

나 같은 사람도 20년 가까이 살다 왔다고 그림긴 그림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거 가 한 달 있다 왔잖아.

이놈의 세월은 어떻게 될란고..

길거리의 울림

약삭같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누굴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적으로 아주 열심히 성을 다해서 ..

더 약삭같이 해야 돼 인내. 참고 견뎌야 돼.

나도 이게 힘들거든? 나는 천주교 신자인데.

법정 스님이 취미가 뭔지 알아? 끝없이 인내. 그게 취미래. 돌아가셨지만은.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말이 참 좋더라고.

끝없는 인내. 참고 견디는 거지.

항상 아르바이트에 가는 길에는 마주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다.
 21년 5월부터 쪽 트럭에서 살고 계신 할아버지.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쪽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
 할아버지의 트럭을 지나다닐 때마다 마주치니 낮도 익고 웬지 모를 정도 들었다. 할아버지는
 공사장 벽에 문구를 많이 적어놓으셨는데 그걸 매번 읽었다. 읽었던 문구도 멈춰 서서 또
 읽고 사진을 찍고 또 읽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어떤 경위로 길 위에 트럭을
 갖다 놓고 살고 계시는지 궁금증을 참고 있다가
 10월이 되어서야 할아버지께 말을 걸 수 있었다.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하실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와서 이야기를 물으면
 달갑지 않아 하실 것 같았고 시작도 못한 채 흑여 거절당할까 겁이 났다.
 전에 을지로에서 인터뷰를 할 때에도 카메라를 빼앗길 뻔하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거의 쫓겨 돌아온 일이 있었기에 더욱 다가가기 힘들었던 터이다.

5개월간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할아버지는 아주 손쉽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정말 점잖고 좋은 분이였다.

할아버지의 성함은 이 종 열이다.
 아현에서 태어나 아현에서 자란.
 초등학교도 한서 초등학교를 나오신 아현 토박이셨다.
 그런 아현 토박이는 왜 길 위에 나왔게 되었을까.



140일 됐어.

억울하고 분하고 하지마는 나한테 주어진 일이다 생각하고. 나한테 이런 일이 억울하고 공정치 않고 상식에 어긋나고 정의롭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야. 내가 평생 살던 집이거든. 그걸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금액을 정해서 나가라는 게 그게 잘못된 거지. 지금도 순 영터리로 억지로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나보고 부당이득금을 내라는 거야. 왜냐하면 빨리 길바닥에 안 나갔다고.

내 실제 평수는 18평 반 정도 되는데 얘네들 얘기는 66평이래. 순 영터리라는 거지. 재네가 공탁금을 돈 줬으니까 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공탁금 준게 18년 1월인데 나가라고는 16년 6월부터 3500만 원을 내라는 거야. 배운 게 없고 무식하니까. 변호사 구하기도 참 어렵다고. 특히나 민사라는게.



구멍 뚫어놨잖아. 구멍으로 앞이 보이지. 저걸 들고 청와대까지 걸어가는 거야. 36일째 단식하고 있는데 밥을 안 먹어. 매주 가는데 내가 어느 정도 아위었을 때 또 가는 거야. 내 모습이 많이 말랐거든. 더 마른 상태에서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걸어가는 거야. 이만큼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73살인데 살 만큼 살았지. 이런 세상에서는 안 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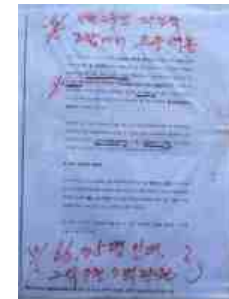
혼자서 하는데 누가 알아주냐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조금씩 바뀌어야 돼.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아 그 돈은. 근데 이걸 아니라는 거지. 단독 2층 집에 6남매 장남으로 태어나서 어머니도 모시고 살았었는데 이걸 잘못된 거지. 내가 억지로 남에 걸 달라는 게 아니라 내 땅과 내 집이 필요하면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랬더니 무슨 전세금도 안되는걸..

여기서 태어났더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래. 이 세상이 법, 행정, 집행이 다 잘못된 거야.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귀담아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같이 돈 있고 뺨 있는 사람들끼리...

내가 무슨 나중에 나 같은 사람이더라도 내가 무슨 이득을 보기 위해 그러나? 잘못된 거잖아. 저거 없어도 살아. 여기서도 140일 넘게 살았는데 뭐 하하.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왜 그러냐면 재개발 지역을 재건축 지역으로 만들어놨어. 재개발이랑 재건축이 달라. 같은 조건인데도 재건축하면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이라 그러는데 이런 데는 사실 재개발이거든. 왜 재건축하면 사업하기에 유리하면 세입자들한테 아무것도 안 줘. 오래 살든 조금 살든 임대 아파트도 안 줘. 원래는 오래 산 사람한테 주거권 재개발은. 원래는 임대 아파트를 지어. 근데 여기는 이사 비용도 없어. 그게 재건축이야.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은 ...



어디 갖다 놓을 곳이 없어서 다 두고 나왔어.

2016년 말까지 나가라 해놓고 돈을 안 준 거지.

내가 그때는 건방져서 집에 있지를 못하고 전철연이라고 전국철거 입주민 연합회 사실 상가 세입자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다.. 내가 전국철거 연합회 아현 2구역 재건축 지역 위원장을 맡았네 왜 맡았냐 나는 그런 거 안 하려 그래. 나는 왜? 사람과 사람에 배신당한 적이 있어서 절대 이런 데에 앞장서지 않는다 이거지. 쉽게 말해 노조지. 노조가 임금.. 한창 노조 생길 때.

같이 영업용 화물차 가지고 있었는데. 자가용 가지고 용역들이 들어와. 자가용 넘버 가지고 영업을 하겠다는 거지. 그럼 개네는 싸게 들어올 수 있고 우리는 내쳐버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이 와서 우리를 내쫓는 거야. 같이 정규직 하면 되는데. 영업용 가지고 와서 하면 되는데 정상적인 자가용 가지고 와서 영업하겠다는 거야. 안된다고 싸우다가 나만 배차를 안 해주는 거야. 며칠 있으니까 안 해주더라고. 화물을 운송하려면 배차를 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차를 팔아버렸어. 너네랑 안 해.

사람은 그래. 그런 좋은 기회가 있어도 발로 차는 수가 있어요. 나는 좀 그런 성질이야 하하. 흔히 그런 경우가 있어. 좋은 자리가 있어도 무조건 싫다고 그래. 어떻게 보면 배운 게 없어서 열등감이랄까. 여기 한서 초등학교 나왔어. 여기서 태어났다가니까. 토박이야.

합의하면, 괜찮다는데도 양심이 찢린다니까?

나는 나 혼자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오지. 여기서도 나중에 배신당했잖아. 내가 위원장인데 여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야. 할머니들. 하라 그래서 그래 희생하자 하고 했는데 뭉쳐도 못살판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도 잘 다스려서 하다 보니까 젊은 애가 하나 또 들어왔어. 아무래도 잘 판단해서 해. 나보다 20년 아래야. 같이 했어요.

내가 주장하는 건 자기 재산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 내가 내 것을 찾는 것은 절대적인 거다. 내 것 뺏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해야지 절대로 누가 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의견이 그 소리가 자꾸 들어가지. 이제 개네들도 먹고살아야지 뭐. 나는 좀 아니까. 자네는 직업이지 뭐 할 수 있나.

꽃은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건너편에서. 굉장히 오래가네. 열흘 넘었는데

추석 땀 내려갔다 오셨어요?

일부러 안가지. 손주들 보여줄까?

아들이랑 며느리는 저 왼쪽에 사는데 아내는 지금 거기있어.
손주가 셋이라 애들 봐준다고.

아드님은 뭐라고 하세요?

말하지. 고생하지 마시고 다 잊고 일로 오라고. 생각이 다르지. 나는 이것을 주어진 일이다. 이게 무슨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2018년 아니야. 만 3년이 넘었어. 그전에도 안 뺏기려고 용역 깡패들도 그렇게 싸우고.. 구청에도 많이 가고 구청장이랑 면담도 하고 .. 건방지지마는 나는 갈 때까지 가보자. 10원 한 푼 안 받고 그냥 쉽게 벌어서 너희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대다수 사람들이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다 그래. 속으로는 너네는 계란 가지고 바위 쳐보거나 해봤어? 바위도 약점이 있다고. 계란도 단단하면 엄청 단단해 하하하

계란은 깨면 물잖아요. 바위에

바로 그거야. 계란을 자꾸 던지만 바위가 계란이 된다? 하하하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지마는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거지 뭐

왜 없는 사람 것 뺏어서 있는 사람 배 채우냐 이거야
세상은 이렇게 돼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거든.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일을 해 죽느냐 사느냐.
나는 비로소 지금 단식할지가 36일째야. 근데 밥만 안 먹는 거지 물을 안 먹으면 죽어 5일만 안 마셔도. 사람 따라 열흘도 가고 그러는데 ..

방송하시는 건 뭐라고 말씀하시는거예요?

그거는 이제 차가 정지돼있을 때.
썩 썩 다닐 때 하면은 괜히 이쪽 보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아현 2구역은 부동산 적폐 청산 지역이다.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개발 지역을 재건축 지역으로 바꿔서 땅 없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야. 214세대. 조합원이 되면 분양권을 받게 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모자라니까 누군가는 쫓아내야 대.
154세대가 현금 청산자. 즉 비조합원으로 쫓겨났어.

할아버지도 쫓겨나신 거예요?

나는 가입을 안 했어.
2억 7700을 준다 그러는데 그거 가진 나머지 4억 가까이 되는 돈을 내야 되니까 빚을 지잖아. 멀쩡히 살 고있는데 왜 빚을 져야 해.

다른 분들도 계세요?

많이 있었지.
많았는데 합의 보고 간 사람들도 있고 많이 받은 사람은 2억 정도..
위원장 이이었던 나를 거절하고. 내가 이제 쫓겨났어.
예전에는 열심히 했어. 이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나보고 위원장을 인제..

전철연에서도 쫓겨났는데 투표를 하는데 거기서 한마디 말도 안 해 아는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애쓴 사람이야.
강제집행당할 때도 내 거 있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도와주고. 내 것만 챙기려면 내 것만 하면 되는데.

원래 살던집은 어디예요? 지도에 표시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도가 요즘 거네?
원래 살던 집은.. 어디쯤이지...
염산 교회 앞이야.
한서 초등학교 앞.

살림이 숟가락 젓가락부터 가전제품 사진 서류 다 모든 걸 다 가져갔어. 보관시켜놨다가 찾아가라는데 2층 집에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갈 곳이 어디 있어.

사람도 아무나 사랑하고 믿으면 안 돼.
어려워 하하

사람을 믿고 사람은 좋아하되
모든 걸 조심해야 해. 절대 함부로 거리를 좁히면 안돼.
까막하면은....

거리는 언제 걸으세요?

모르지. 그거는 비밀이야.
내가 아주 쇠약해졌을 때 걸을 수만 있을 정도로 약해졌을 때..

이건 앞을 보려고 구멍을 뚫은 거야.

어둠 속 오색 빛



우리는 공기판을 벌인 이후로
 혹시나 할머니들을 또 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흥제천을 자주 들락거리게 되었다.

하루는 모래내 시장에 가려고 어떤 골목을 통해 지나가려는데,
 그 골목 앞에 있던 건물의 낡새가 이상했다.
 앞의 상가는 활발히 장사 중인 반면에
 그 안은 생기라곤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두컴컴했기 때문이다.

그 건물을 둘러 지나가는 내내 왜인지 심장이 쿵쿵 뛰었다.
 몸은 앞을 향해 걷는데 눈초리와 내 모든 신경은 옆의 건물로 향해 있었다.
 그러던 와중 그 앞은 눈초리에 계단과 그 위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이불이 잡혔다.
 ‘여기에서도 장사를 하나? 이 건물 대체 뭐지?’
 어둠뿐인 그곳에서 찬란하기까지 해 보였던 그 이불들을 본 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새에 건물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처음 발을 들인 지하공간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어떤 공고문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는 그 공고문을 보기 전과 후로 나뉘었다.

그 공고문이 붙여진 입구부터 시작해 우리는 그 건물을 탐방했다. 우리의 행위에는 탐방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릴 것이다.

더한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사실 이날 있었던 사실에 있어서는 기억이 온전치 못하다.
그날 내내 덜덜 떨고 있었기 때문일 테다.

건물에 대해 조금 서술해 보자면,
건물이 대로변과 마주한 면의 층에서는 과일 가게가 장사를 활발히 하고 있고 그를 기점으로 오른쪽이 우리가 처음 마주했던 그 계단 위 오색 이불이 있었으며

왼쪽으로는 여종업원을 구한다는 종이가 붙어있으며 열린 문틈으로 빨간빛이 흘러나오고, 그 옆의 다른 문에서는 아가씨 차림을 한 사람이 바닥을 쓸고 있었다.



기억이 나는 건 이뿐이고, 그 가게들의 이름, 그런 가게가 몇 개나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는 고작해봐야 스물 조금 넘긴 여자애들이었고
 이런 광경을 마주한 건 인생 처음이었기에.
 서로의 팔짱에 기대어 빠르게 눈을 돌려가며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빠져나갔다.
 길의 끝이 보였을 때 우린 거의 경보대회에 나간 선수와도 같았고
 그 골목을 나간 후에 우린 서로의 손을 잡고 헉헉 대기 바빴다.



이런 곳이 아직 존재한다니.
 분명 너무 무서운데, 맞잡은 손은 덜덜 떨리는데,
 발은 그 건물 앞을 떠나질 못했다.
 그만큼 이 건물이 주는 아우라가 컸기도,
 우리의 궁금증이 쉽게 사그라 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지하공간에서부터 건물의 옥상까지 그 건물을 훑어보았다.
 꼭 그 건물에 홀린 듯이. 겁에 잠식되어서 건물을 뛰쳐나갔다가도
 우린 금세 그 앞을 기웃거렸다.

잠시 건물에서 뛰쳐나갔을 때 찾아본 바로는,
 이 건물의 이름은 좌원 상가이고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이라고 한다.
 세운 상가보다 더 오래된.
 다음은 좌원 상가가 완공했을 당시의 포스터이다.

※생활의 근대화

독신아파트 분양및임대

남
수
실

- 신선, 조용, 최상위
- 완성된 동산 단지
- 완벽한 조망
- 완벽한 주차시설
- 24시간 경비, 화재, 방범
- 24시간 관리사무소

유형	면적	가격	비고
1인	33.00	210,000	1인용
2인	44.00	280,000	2인용
3인	55.00	350,000	3인용

고급 맨션아파트 (11층)

유형	면적	가격	비고
1인	33.00	210,000	1인용
2인	44.00	280,000	2인용
3인	55.00	350,000	3인용

월세임대 7개월부터 가능

좌원산업(주) 회사

서울시 서초구 남원로 219-3
 프레스나우빌딩 20층(문자구 앞길)
 전화 02-3711-1111 (주) 24시간
 시내버스 1013

혁신적이었던 독신 아파트, 고급 맨션아파트로 브랜딩 된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이라는 의미 있는 타이틀까지 가진 좌원 상가는
어쩌다 건물 진단 E등급을 받고
사람보다 바퀴벌레가 더 많이 살고 있는 건물이 되었을까.

건축가 황두진의 말을 빌려보면,
'이처럼 좌원 아파트는 생활의 근대화를 주장하며 독신 아파트로 브랜딩을 했지만

실상은 어땠을까. 모래내 지역은 서울의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 빈민들이 모여들던
곳이었다. 좌원 아파트가 들어서는 시점을 전후해 인구가 늘어나고 모래내 시장이
생겼지만 여전히 먹고사는 일이 어려운 곳이었다. 저 독신 아파트에 과연 독신자가
들어가서 생활의 근대화를 만끽하며 살았을까.
아직도 좌원 아파트와 관련된 자료에서 여전히 쪽방과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 현실은 그와 사뭇 달랐던 것 같다'

이 말을 통해 내가 위에서 했던 질문에 대해
조금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건물을 돌아다니며 신기하고
조금은 이상하다고도 생각했던 것들을 몇 가지 적어보자면,

여태껏 보지 못했던 건물 양식이 첫 번째로 꼽힐 것이다.
후면부가 사다리꼴로 증축된 낮고 넓은 건물.

그리고 건물 1층 안쪽에 위치한 콜라텍과
그를 대낮에도 넘나드는 아저씨들.
또 같은 아저씨들인 건지,
대로변 쪽으로 풀려 있지만 계단에 가려있는 공간에 의자를 두고
왜인지 날카로운 눈초리로 바깥을 살피시던 아저씨들.

철창으로 막혀있던 2층 복도와 3층으로 올라가면서 맡았던
꼭 소풍 냄새와도 같은 냄새.

욕상에 무수히도 많은 이상한 굴뚝같이 생긴 것들과
널브러져 있던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흙, 깨진 유리와 거울 조각.
이 넓은 건물에서 일요일에도 나와계시던 한복집 할머니 정도가 되겠다.

겨우 용기를 낸 우리는 한복집 할머니께 말을 물었다.
그리고 어쩌다 할머니의 이야기까지도 듣게 되었다.

어어 앉으셔

여기 오래 계셨어요?

네.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오래됐어. 우리는 여기. 우리 딸내미 3살 때니까 한 40년 넘었어 이거 사농은 지가.
그렇게 한 40년 넘었지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일을 하신거예요?

아니 시장에서 하다가 이리 올라왔지

한복이랑 이불 같이 하시는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 서대문구?

아현에서 왔어요. 저희는 서대문구 청에서 나온게 아니고 그냥 학생.
사람들 이야기, 어르신들 이야기 듣고다니는.

아 그런 사람. 아 이렇게 사람이 그렇지 뭐 다 이리고 사는 거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문득 할머니는 우리에게
여기가 언제 개발되냐고 물으셨다.

오늘 처음 이 건물을 알게 된 우리에게 건물의 상황을 물으니,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언제 개발되는지를 검색해 알려드렸더니 우리에게 좌원 상가의 재개발
계획이나 상황을 물으셨다.

처음에는 회의도 하나도 오라 고도 하고 서대문구에서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상황을 알았다가도
지금은 소식이 끊긴지 오래됐다고 한다.

그래서 할머니는 오늘 처음 여기에 온. 이 건물에 대해 들어온 우리에게 이 건물에
대해 물어보셨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우리는 서대문구청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계속해서 이것저것 물으시는 걸 보니
내년이면 재건축이 들어갈 다 무너져 가는 건물에 앉아
눈앞의 잔뜩 쌓여있는 이불과 짐만 보니
많이도 답답하셨나 보다.

그래서인지 할머니의 모든 대답은
다 그래서 언제 뭐 어떻게 한 대?라는 물음뿐이었다.

근데 인자 여기 또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언제 한대 여기는?

내년인가 내후년.. 2년 내었던 것 같아요. 안알려주셨어요 거기서?

아니아니 그냥 확실한 걸 모르니까.
... 내년?

내년까지? 내년서 내후년까지
내년에서 후년까지 이사를 언제까지 간대?

25년에 완성이 된대요.아, 22년이었던 것 같아요.

22년 이사가고?
그럼 서대문서 그 시장을 지어준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야?

시장이요?

이거 우리 상인들 이렇게 다 장사하라고 지어준다고 그러지만. 그거 어떻게 된 거에
요? 그거를 해준다고 구청장님이 오셔서 그랬는데
왜 근데 이렇게 아무 말도 없어 지금 조용하잖아. 지금..지어야되는데 아무소리가 없
어. 저기 농협 가는데에 오리탕 집 앞으로 해준대.
왜 우리도 물건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갖다 옮겨야 가지. 짐이 이렇게 많은데.. 몸
나가는 거야 걱정이 없지만은 우리 짐이 이렇게 많아서. 솔직히 앞에도 많이 있고 뒤
에도 많이 있고 이게. 그래서 우리 가게를 지어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보고 있는
데 뭘 나는 그걸 확실히 몰랐잖아 그 대답을 안 들어서. 아이고 지어준다 그랬으면
시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조용하잖아

몇 달 뒤면 할머니는 여기서 나가야 할 텐데
아직 시장 얘기는 감감무소식이다.

2층 보니까 빈 집도 좀 있는 것 같던데요?

많이있지. 많이 있어요.
빈 집들이 많아 주인들이 비워놨나봐. 세를 안주고.
이게 어차피 이사할 거잖아
뭐 사람들 다음에 이사 비용 내놔라 뭐 하라고 그러니까 세를 안 줬나 봐 그냥 나갈
사람이 없잖아

아 많이 나가셨구나...

여기 추억이 굉장히 많은데 보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잠을 못 잤죠. 걱정돼서 잠을 못 잤지 그거 다 짐이랑 이거 와서 장사를 하는데 어딜 가나 이거 걱정했는데 뭐 이거 가게를 지어준다니까 조금 안정한데 요새는 조용하니까 나는 답답하지 할머니는. 그거를 보장을 잘 가게를...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안 해주고...
뭐죠 그래서 처음에 또 오셔갖고는 입주를 계산을 해야 이사를 간다고 그랬더니 세 안 나가고 간다 그러더니 또 세를 내놓으라 그러더라고
또 또 오셔서. 세를 그제 우리는 집주인들은 세를 내지 마라 그러더니 또 그 아가씨가 오늘은 왔으면 내일 또 직원이 와갖고
또 가게 세를 줘야 이사 간대. 내야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금방 말을 바꿔갖고 요샌 또 암말이 없어. 여기가 우리 가게도 이렇게 장사도 못하는데 그냥 둔다고 그래서 내가 간다고 그리 간다고 써놔더니 그런 말도 없고 저런 말도 없고 껌껌무소식이야.

갑갑하시겠어요..

답답하지.
근데 이제 구청장님은 나는 그거를 답변을 해주면 좋겠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나는 가만히... 할머니가 뭘 알겠어
그 와갖고는 뭐 저기 이사를.. 돈을 받을래 이 이사를 갈래 그래서 나는 이 물건을 장사를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하겠어. 처음에는 비용만 받고 말을까 그랬더니 가게세를 안 받는다니까 가만히 그냥 있을까 했더니 또 와서 금방 다시 왔는데 또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고 또 직원이 오셔갖고 가게서 저기 이사 가갖고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쏭달쏭이지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써줬더니 또 그다음 날 직원이 오셔갖고 세를 내야 된다고 저 이사 간대 그러면 또 어떻게 뭐 요새는 회의도 안 하네.

회의 오라는 말도 안 해 사무실에서 회의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말씀도 없어 자기들끼리 하고 있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도. 아가씨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얇은 사람 얼마나 궁금하겠어.



이거 진짜 할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요즘 이불을 이렇게 손수 하시는 데가 진짜 많지 않은데..

원래 젊어서 처녀 때 배워서 이제 이렇게 했죠. 다 손수로 이렇게

언제요? 몇 살 때부터..?

오래됐지 오래됐지
그래 배워갖고 이렇게 애들은 결혼하고도 그.. 별거 다 만들어.
그래도 이거 가서 그냥 수익을 많이 못 내고 조금이라도 이제 얼마를 깎아줘야지 그
걸 어떻게 다 많이 내겠어.
그러니까 짐은 이렇게 많지. 이사는 암 말도 없지.
갑자기 이사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 우리는.
준비를 해야지. 이 많은 물건을 어찌하냐고.

‘우리가 설문 조사를 가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전해줘요.
할머니가 걱정하면서 말씀하더라고 그래.

저희가요? 하하하

그 사람들도 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거예요. 내 말은. 내 말 한번 전해줘요.

모래내 시장에 이거 좌원 상가 오복 상회인데요.

여기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거를 비워 달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많은 짐을
어떻게 하나고요. 뭐 상가를 자리를 마련해 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갑자기 이사로 가라고 그러면 하루 이를 되는 거 아니고 살 방법
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게 어떻게 우리도 안정을 하고 한다면지 짬짜 이사를 가라 어디
하루아침에 이사를 가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고요

모래내 시장에서는 얼마나 계셨다 그러셨죠?

오랜 시간 했는데 내가 야 남의 가게라 비워주고 이렇게 내 가게라고 찾아왔는데 이
걸 또 갑자기 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 가게인 줄 알고 이렇게 내 가게라고
왔는데 그거는 남의 집의 남의 가게고. 이게 돈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로 왔는데
나도 지금 여기 장사할 때가 아닌데 사람들 장사도 안 돼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리 얼마나 답답하겠어. 길에 옆에 장사가 되고 2층 이렇게 구석탱이에 앉아 갖고 물
건을 이렇게 들여놓고 장사는 안되고 답답해 죽어요.

할머니는 그럼 평일에도 계속 계세요?

그럼 맨날 나오지. 앉으나 서나 여기 있어야지. 내 집이 이게 내 직장이라고.

**그래도 그중에 평일에는 여기가 그래도 장사를 지금 좀 한다고 들었어요.
문구점도 있고 좀 활발하게 사람들이 오간다고..**

아 여기 IMF가 되어갖고 사람이 여름에 안 들어와 갖고 와도 죽을 뻔했고 내가 여기
서 그래고 올해 다 늠었다고 그게 야 사람도 안 들어오지 내가 이 할머니가 이거 앞
아 있으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사람도 안 다니지..
또 그래서 올해 다 늠었다니까 할머니가?

미술 같은거 이런 거 다 어려운거여. 우리가 손으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옛날에 어디 모래내 사람들 이불 다 만들어서 다 덮었지 뭐.
내가 만들었어. 그 할머니들은 다 안 오고 나만 이렇게 왔어.

다른 할머니들은요?

다 안 하지. 이불장사.. 안 하지. 그 사람들은 자기 가게니까 돈도 많이 받고 그러니
까.. 나는 거기서 세 들어 장사하면서 남이 좋은 일만 한 거지.
모래내 시장에서는 오래 있었지만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할머니는 지금 상황이 꼭 IMF처럼 느껴지셨나 보다. 이 대화에서 IMF는 covid-19 상황을 밝힌다.

지금은 10억 한다잖아 10억. 가게도 10억 집도 10억. 나는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남이 좋은 일만 하고 온 거여.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여 그러니까.

남을 못되게 하고 나쁘게 하면 내 맘이 불안하니까 늙는 거여.
나는 남의 집에 살아도 내가 행복하구나 하고 살았지.

그런데 여기 자꾸 아저씨들이 많이 지나다니시는데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태 춤추는 곳 노는데..

아아 아까 그 콜라텍..

11월 1일부터 문을 다시 열었어 여태 달아놨다가.

예전엔 사람이 엄청 다녔지.
IMF 터지고는 사람이 하나도 안 다녀.
근데 집 짓는다고 난리니.
내가 가는 데만 집 짓는다고 난리여.

그냥 우리 집만 왔다가 여기 왔다가 ..
할아버지가 그런 데는 또 나를 안 데리고 갔으니까.
할아버지가 깡간해 갖고 나쁜 데는 못 들어가.
거기서 남자랑 여자랑 춤추고 그제 나쁜 데지 뭐 있어.

4층에 복도가 철조망으로 막혀있는 곳이 있던데 거기는 좀 다른 곳인가요? 아세요?

어디 여기 철조망? 올라온데? 여기서는 그냥 인자 이쪽부터는 막혔나 봐. 모르겠네.
여기는 춤추고 노는 데라..

집이 헐어서 물이 썩어갓고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물이 흘러내리고 지금도 막 새잖아 이렇게 막
여기도 차 갓고 뭘 자꾸 깔아놔야 돼.
저쪽도 흐르고 막.. 그렇게 되고.
저쪽으로 인자 계단이..

별거 다 심어놔어 옥상에는. 옥상은.. 그런데 안가
깜깜하고..
여기 사람들도 위험하잖아.
저기서 춤추고 나가잖아.
장사하고 있는데 나를 건들면은 법이 딱 탄압을 해.

2008년에 불이 났던데요?

그래 불났지.
불 많이 나가지고 시커 매서 페인트칠 다했잖아.
저 밑에서 나가지고. 지하에서 불이 났어.
몰라 나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불이 많이 나갔고 난리가 났지. 나는 그거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 그때는 비어있었나 그랬어 사람 살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또 인명피해가 밑에서는 많이 났나 봐.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내가.

세상살이가 이렇게 힘드네.

할머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많죠. 많아도 이거 이거 먹고살려니까 하루 없지.
돈 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별로 안 많아 보이세요.

얼마나 먹어 보여 할머니가?

60대 초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70이 넘었죠.

진짜 주름이 없으신데요?

하하 그래? 아이고 고맙네..

1층에도 한복 집이 있던데, 그곳 할머니랑은 알고 지내는 사이세요?

건물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 없어. 어떤 할머니지 모르겠어.

아는 체도 안 하고 다들 볼일만 보고 요새는 돌아다니면 안 되는 동네고 여기서는.

시장에서는 나는 거기서도 일만 했는데 거기 사람들은 인자 일만 하고 그래서 나를 잘 봐줬는가 몰라 한 푼씩 보내주시고 그렇지. 한 사람씩이라도 오고 그러지.

예전에 음식도 나눠 먹고. 시장이 좋았어. 모래내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 가족 같고 나쁜 사람 별로 없었어 모래내 시장에는 처음에 모래내 왔을 때는 모래내시장에서 가게 안에서 애들이랑 다섯 식구가 살았지 저기서. 저쪽에서 고생 많이 했지. 물도 없는데

고향에서 시집을 갔지. 서울에서 기술을 배워갖고 남동생이 인자 시골서 연애를 했나 봐 나는 누나고 어머니가 누나가 빨리 시집을 못 갔다고 날 데려왔어 미아리. 미아리에서 기술 배웠어.

태어난건 전라남도. 거기서 와갖고 기술 배워갖고 내가 인자 처음에는 올케언니가 걱정 됐나봐 오빠하고. 나를 시골 자꾸 내려가라는 거야.

창경원 막 유명했잖아 응? 옛날에. 창경원이 서울에서 유명 났어. 그러니까 올케언니가 옷 한 벌 해주고 창경원 구경시켜주고 시골 내려가라 그러더라고. 나는 옷도 필요없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뽕족구두도 사 신을 거라 그러니까 시골은 안 내려간다고 그랬어.

17살 때 왔나 미아리에. 미아리에 오빠가 있어서. 자기들 신혼부부 생활에 시누가 왔으니까 불편하지. 그래서 이불 배우는 데에 느꼈지 나를.

올케 직장에서 배웠지. 그래서 배워서...

나는 내려가기가 싫었어. 아니 우리 친정이 할아버지 집이 우리가 부잣집이라서 잘 살았어. 할아버지가 15살에 진사가 되고. 열다섯에 진사되면 엄청나잖아. 땅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근데 아는 사람이 이장을 하면서 이장을 해갖고 그 사람이 우리 집 도장 가지고 땅 다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놀음을 시켜서 재산을 다 뺏겼어. 친정아버지가.

산중별을 들어가셨어 아버지 엄마.

오빠가 서울서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왔지. 그래서 내가 오빠 따라간다 그랬더니 못 오게 하고 오빠 친구들 데코 가갖고 기술을 배웠어.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데리러 왔어 내가 남동생이랑 2살 차이다.

한동네에서 연애를 했나 봐..

내가 소를 한 마리 사봤어. 사봤더니 엄마가 소 판다고 거짓말로 돈 벌어갖고 올케가 내가 3년 동안 번 돈을 다 썼어. 동생은 대학에 가더니 나중에 교수가 됐지. 올케가 맨날 아파서 병원 생활하다가 작년에 가셨어. 그래서 돈은 먹으면 안돼.

엄마를 따라갔더니 시집가라고 중쟁이가 온 거야.

남동생 결혼하면은 누나가 시집을 못간대. 중쟁이가 선을 보려 와 얼마나 서러워.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선보고 시집가라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친정아버지가 딱 집안사람을 데려왔어.

이 사람은 인자 집안이 괜찮고 얼굴도 잘 뵈나 봐. 할아버지가 잘 생기고

양반집에서 컸으니까 인자 아버지 맘에 들었나 봐.

어머니 아버지 맘에 들어서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농사가 많고 그런데 내가 셋째 며느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서가 식사를 시키는 거야 할 줄 몰라서.

나한테 다 시키는 거야 시집을 갔는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큰아들 같으면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셋째 아들인데 뭐.. 구박이나 받지 뭐..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서울로 와서 오빠 집에

가있다가 일로 왔지. 할아버지랑 같이 왔지.

뽕족구두는 신으셨어요?

뽕족구두는 안 신었지.

근데 지금은 사는데 지금은 할아버지하고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맨손으로 와서 물도 없이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살았지.

미아리에서 내가 점을 봤어.

신설동 쪽대기에 사촌 언니가 있어서 여자가 4개월이 되어 배가 금방 부르지 뭐야.

신설동 어디에 가서 점을 보니까 산으로 내려가래.

신설동이 해 넘어가는 쪽이잖아. 글로 가면 잘 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자 해가 넘어가는 쪽으로 왔어 내가. 그래서 서쪽으로 왔지.

그리고 여 와서 자리 잡고 장사도 해갖고 먹고살고 그랬지.



.....

나는 대번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나를 찾고 위로를 얻는다.
그리고 이 책은 누군가 내게 해준 위로의 한 부분이다

대화는 말의 형태로, 말은 글의 형태가 되고
그 글은 여전히 내 곁에 남아있다.

그러니 나는 이 끝자락으로 향하는 것들을

마음 속 어딘가 세긴다.

